

문 로스트

(Moon Lost)

- 1부 -

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원안 변승민

각본 김준성 양인호

1. 소행성 몽타주

- 주디트의 집.

자막 ‘2025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응시 중인 어린 주디트(여 / 11세).

작은 두 손을 꼭 쥐 채,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주디트의 옆자리엔 남동생 레오(남 / 5세), 뒤편 가정부가 서 있고,

뉴스 앵커 (긴박한 목소리로) 충돌까지 약 20분!! 현재 소행성 네메시스는 초속 43km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월면기지 책임자인 안젤라 선장이 네메시스 제거 작전에 착수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유럽 우주항공국 ESA 상황통제실.

대형 모니터로 월면까지 선장 안젤라(여 / 40대)의 모습이 보이고, 그녀와 교신 중인 ESA(유럽우주항공국) 시엘 국장(남 / 50대)도 보인다. 그 뒤로 ESA 관계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시엘 안젤라! 나노 블랙홀은 너무 위험해! 미사일로 소행성을
격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안젤라) 미사일로는 궤도 수정은커녕 파편만 양산 될 겁니다!!

시엘 (곧어지는) 프로스트 박사의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만약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

(안젤라) (단호하게 말 자르며)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요!!

- 우주 공간.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소행성.
그 위로 들려오는 안젤라와 월면기지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

(안젤라) 핵융합로 최대 출력!

(대위) 전 리니어 레이저 가속기 출력 조정 완료! 초속 10만 km

로 가속! 최대 출력 100테라 전자볼트!
(안젤라) 나노 블랙홀 반응 확인! 레일건에 장전. 발사!!

순간, 달에서 번쩍! 빛이 나더니, 월면기지에서 발사된 수만 개의
나노 블랙홀들이 소행성으로 날아가 소행성을 감싸듯 빛반응을 일으킨다.
나노 블랙홀의 영향으로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소행성.

- 미국 우주항공국 NASA 상황통제실.

위성 화면으로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소행성의 모습이 보이자,
NASA 대원1이 레이더망에 뜬 소행성의 궤도를 확인한다.

대원1 프로스트 박사님의 나노 블랙홀 가설이 맞았어요! 소행성
의 질량이 줄어들면서 궤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원1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프로스트(40대 / 남)
박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 유럽 우주항공국 ESA 상황통제실.

NASA와 동일한 위성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시엘 국장과 관계자들.

대원2 소행성의 궤도가 지구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위성 화면을 지켜보던 시엘 국장과 관계자들이 환호한다.

- 미국 우주항공국 NASA 상황통제실.

하지만 순간, 환호하던 프로스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진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그가 종이에 숫자들을 적으며 뭔가 계산하더니
이내, 창백해진 얼굴로 모니터 쪽으로 뛰어가 안젤라와 교신한다.

프로스트 (다급한 표정) 안젤라 선장! 월면기지에서 빨리 탈출하세
요! 소행성 궤도가 예상과 다르게 불안정해요. 몇 분 안에
달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젤라) (굳어지며) 달과 충돌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프로스트 나노 블랙홀이 증발하지 않았어요!
 (안젤라) 아니, 그럼...?
 프로스트 오히려 나노 블랙홀이 소행성의 질량을 삼키며 증식하고
 있어요! 이 기세라면 금세 달을 빨아들일 겁니다!!
 (안젤라) (놀란 표정으로 눈동자가 커지고)

- 우주 공간.

빛반응을 일으키며 방향을 틀어 달을 향해 날아가는 소행성.
 그러다 소행성의 크기가 점점 더 줄어들더니,
 빛이 소행성을 잡아먹고 거대 블랙홀과 같이 변한다.
 거대 블랙홀이 소용돌이치며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다가,
 엄청난 바람을 휘몰아치며 급기야 달과 월면기지를 삼키기 시작한다.

- 미국 우주항공국 NASA 상황통제실.

블랙홀이 달을 삼키고 있는 모습에 절망하는 프로스트 박사.

프로스트 ... 안 돼!!!

- 유럽 우주항공국 ESA 상황통제실.

심각한 표정의 시엘 국장이 다급히 월면기지과 교신을 시도해 보지만,
 요동치던 월면기지 상황실과의 교신이 뚝- 끊기고,

시엘 ... 안젤라!!!

- 우주 공간.

순식간에 달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대 블랙홀.
 그러다 번쩍! 섬광이 일어나더니 블랙홀이 서서히 소멸한다.

- 미국 우주항공국 NASA 상황통제실.

절망적으로 흔들리는 프로스트 박사의 눈빛.
 이내, 프로스트 박사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고 만다.

- 주디트의 집.

불안한 표정으로 TV 뉴스를 보던 주디트가 창가로 뛰어가더니,
창문을 열고 하늘 위를 바라본다.

- 우주 공간.

고요한 정적과 함께 광활한 우주에 덩그러니 홀로 떠 있는 지구.
지구 옆을 지키던 달이, 사라졌다.

주디트(NA) 2025년 겨울. 난 엄마를 잃었고, 지구는 달을 잃었다.

타이틀 <MOON LOST> EP. 1

2.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D

수십 개의 마이크가 붙어있는 기자회견장 단상 위.
미국 고위층 정부 관계자들과 NASA 관계자들이 서 있고,
그 한 가운데 프로스트 박사가 보인다.
프로스트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음.

기자 1 박사님이 제기한 나노 블랙홀 이론이, 완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소행성 제거 작전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플래시 세례 속,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굳게 다문 프로스트.

CUT TO

국회의사당 건물 밖,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몰려든 시민들로 가득하다.

‘달을 돌려내라!’ ‘프로스트를 처단하라!’

시민들이 각종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데,
이때, 프로스트가 수행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퍽! 계란 하나가 그의 몸으로 날아와 터진다.
 이어 물병과 쓰레기들이 연신 날아들고,
 수행원들의 보호아래 힘겹게 차에 오르는 프로스트.
 절규하며 울부짖는 시민들을 보며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다.

주디트(NA) 달이 사라진 결과는 참혹했다.

3. 재난 몽타주

- 도심 곳곳.

전 세계 도심 곳곳에 달의 파편이 떨어지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주디트(NA) 무수히 많은 달의 파편들이 지구로 떨어져 핵폭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고,

- 해안 도시 곳곳.

거대한 쓰나미가 건물과 집들을 집어삼킨다.

주디트(NA) 해수면이 내려앉아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

- 전 세계 나라 곳곳.

북극점으로 위도가 바뀌어 시베리아 같은 북극 대륙으로 변한 미국.
 사람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피난 중이다.

주디트(NA) 지구의 자전축 변화로 위도가 바뀌면서 미국을 포함한 북
 미 대륙은 북극으로 변했고,

얼음이 녹아 거대 습지로 변하게 된 러시아의 모습.

주디트(NA) 러시아 시베리아 대륙은 영구동토층이 녹아 거대 습지로
 변했다.

뜨거운 태양 빛 아래 밀림과 같은 거대 숲으로 변한 아시아 국가들의 도심.

주디트(NA) 또한, 한, 중, 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열대 기후로
변해 아마존 밀림을 방불케 했다.

- TV 뉴스.

앵커 옆으로 지구 전역 피해 상황 합성지도가 보여 지고,

TV 앵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26억 명에 달해,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디트(NA)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1이 사라지며 재앙은 지속됐고,
프로스트 박사와 엄마는 인류를 구한 영웅이 아닌 재앙의
주범으로 몰리게 됐다.

4. 프랑스 국립묘지. D

묘지 비석에 월면기지 선장인 ‘안젤라’의 이름이 적혀있다.

자막 ‘프랑스 팡테옹 국립묘지’

비석 위로 꽃을 올려놓으며 추모 의식을 하는 시엘 국장과 동료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주디트와 레오가 보이는데,
레오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오열하고 있고,
주디트는 아르테미스 여신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안젤라 유품)를
꼭- 움켜쥐며, 억지로 슬픔을 감내하려 애쓴다.
군중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디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프로스트.
잠시 후, 묵념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짝 눈을 뜬 주디트가
고개를 돌려 프로스트 박사를 뵈며 바라본다.

5. 국립묘지 숲길. D

프로스트가 탄 차가 국립묘지 숲길을 빠져나오는데,
순간, 숲속에서 획- 튀어나와 길 한가운데에서 차를 막아서는 주디트.
화들짝 놀란 프로스트가 끼익-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서면,

주디트가 성큼성큼 프로스트가 탄 운전석으로 다가간다.
당황한 프로스트가 잠시 멈칫하다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면,

주디트 아저씨가 프로스트 박사님이죠?
프로스트 (말없이 보면)
주디트 아저씨 뚝뚝한 사람이니까 알고 계셨죠? 지구가 달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걸.
프로스트 ...
주디트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엄만 아저씨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구도 아저씨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주디트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주디트 전 꼭 엄마를 대신해서 지구에 달을 다시 찾아 줄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해 주디트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프로스트.
주디트가 프로스트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홀연히 자리를 떠난다.

6. 차 안. D

황폐해진 도로를 달리는 프로스트의 차.
운전 중인 프로스트가 NASA 국장과 통화 중이다.

프로스트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NASA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달을 찾기 위한 행성 탐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NASA 국장) 그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프로스트 이유가 뭐죠?
(NASA 국장) 새로운 달이 생기면 지구 자전축이 고정될 테고, 그럼 미국은 북극 기후에 갇히게 됩니다. 자국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릴 순 없어요.
프로스트 (발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달을 찾는 건 지구와 전 세계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작 자국의 유불리함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안의 결정을 미루다니요!
(NASA 국장)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만.

일방적으로 통화가 뚝- 끊기자, 차갑게 굳어지는 프로스트.

7. 도심 거리 - 프로스트 박사의 집. N

쓰러진 건물들과 달 파편 잔해들이 가득한 도심의 밤거리.
잠시 후, 프로스트의 차가 한 건물 앞으로 멈춰 서고,
차에서 내린 프로스트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적혀있는 글자가 보인다.

'Moon destroyer must die !!' (달은 없앤 자, 반드시 죽는다.)

섬뜩한 경고문을 본 프로스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순간, 골목 구석에서 나타난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총을 꺼내 들고,
프로스트 향해 탕! 탕! 탕! 총알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다.
사색이 된 프로스트가 건물 안으로 뛰어가고,
건물 계단을 올라가 거주 중이던 집 현관문을 다급히 열고 들어간다.
문을 닫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탕! 탕! 탕! 문에 구멍이 뚫리며 집안으로 총알이 쏟아지고,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공포에 부들부들 떠는 프로스트.
한바탕 총알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가더니 고요한 정적이 찾아오고,
그제야 두려움에 떨던 프로스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떨려오는 호흡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우두커니 서 있는 프로스트.
점차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독기가 스며든다.

8. 국제 항공우주국 브리핑실. D

INSERT

국제 항공우주국 'WSA' 전경.

‘WSA’ 마크가 새겨진 단상에서 브리핑 중인 시엘 국장.

시엘 현재, 달을 잃어버린 지구는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80여 개국이 힘을 합쳐 국제 항공우주국 WSA를 출범시켰습니다. WSA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CUT TO

출입문이 열리며 브리핑실을 나서는 시엘 국장.
대기하고 있던 WSA 부국장이 시엘 국장에게 다가가면,

시엘 미국 NASA에선 아직 연락 없습니까?
부국장 네. 미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상
태라 오히려 WSA 가입이 국제 주도권을 유럽에 넘길 위
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엘 (굳어지는)

9. 국제 항공우주국 국장실. D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시엘 국장.
그때, 푹푹- 노크 소리 함께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비서실장.

비서실장 국장님. 회의실로 급히 오셔야 할 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시엘 화상 통화요? 누구니까?!
비서실장 미국 NASA의 프로스트 박사입니다.
시엘 ...!

10. 국제 항공우주국 회의실. D

대형 화상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시엘 국장.
모니터 화면으로 프로스트 박사의 모습이 보인다.

시엘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연락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NASA는 WSA와 독자노선을 가
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스트 ...
시엘 (뻔히 보며) 혹시, 죄책감 때문입니까?
프로스트 (잠시 말없이 뜸들이다가) 죄책감보단 책임감이라고 해두
죠. 과학자에게 감정놀음은 사치니까요.

시엘 그럼 이유가 뭐죠?
 프로스트 전 국익만을 쫓는 저희 조국엔 관심 없습니다. 전 단지,
 제가 벌인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WSA에 연락드린 겁니다.
 NASA는 분명 제 프로젝트를 반대할 테니까요.
 시엘 프로젝트라면...?
 프로스트 (대답 없이 시엘 국장을 뺨히 쳐다보면)...

11. (과거) 프로스트 박사의 은신처. D

태양계 행성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차 있는 연구실 안.
 벽면엔 복잡한 물리학 기호와 수학 공식이 어지럽게 적혀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통조림들과, 찢어진 종이들.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온 흔적들이 연구실 곳곳에 보인다.
 구석진 곳에서 바닥에 웅크려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는 프로스트.
 종이에 알 수 없는 수학 공식들을 미친 듯이 적다가,
 마침내 어떤 결과에 도달한 듯 동작을 똑- 멈춘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태양계 행성 위성사진으로 다가가는데,
 위성사진 어느 곳에 프로스트의 시선이 그대로 멈춰서 고정된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목성의 옆에 있는 4개의 위성 중 하나인 ‘에우로파’다.

12. (다시 현재) 국제 항공우주국 회의실. D

확신에 찬 눈빛으로 시엘 국장에게 얘기하는 프로스트.

프로스트 목성의 위성인 에우로파를 지구의 새로운 달로 만드는 겁니다.
 시엘 !!... (놀란 듯 눈이 커지고)

13. 미국 워싱턴 공항. D

피난을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 안.
 중절모를 꼭- 눌러쓴 프로스트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공항 구석 쪽에 있는 물품 보관함으로 다가가는 프로스트.
 물품 보관함 중 하나를 열면 그 안으로,
 파리행 비행기 티켓과 위장 여권, 핸드폰이 들어있다.
 이때, 보관함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뜨고, 프로스트가 확인하면,

‘2층 5시 방향. WSA 요원 대기.’

프로스트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공항 2층 5시 방향을 바라보면,
 WSA 요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서 있다.
 서둘러 비행기 티켓과 위장 여권, 핸드폰을 챙겨 자리를 뜨는 프로스트.
 그런데 이때,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낀 듯 주변을 둘러보면,
 의문의 남성1이 프로스트와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시선을 피한다.
 서둘러 WSA 요원이 있는 2층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거는 프로스트.
 대기하고 있던 WSA 요원이 전화를 받는데,

(프로스트) 미행이 붙은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의 목소리에 1층 로비를 둘러보는 WSA 요원.
 곳곳에 배치된 의문이 남성들이 무선 신호를 받으며,
 프로스트 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WSA 요원 아무래도 CIA에 박사님의 동선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의문남1이 품 안에서 총을 꺼내 들고 프로스트를 겨눈다.
 이에 WSA 요원이 다급히 총을 꺼내 들고,
 의문남1이 총알을 발사하기 직전에 탕! 다리에 총알을 발사한다.
 으윽! 의문남1이 쓰러지자, 공항 안의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는데,
 그 틈을 타 공항 로비를 빠르게 빠져나가는 프로스트.
 의문의 남성들이 자신을 추격하자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그 순간, 로비로 들어서던 금발의 남성과 부딪혀 넘어지는 프로스트.
 금발의 남성이 팬찮냐는 제스처와 함께 프로스트를 일으켜 세우고,
 프로스트는 곧바로 일어나 캐리어를 챙겨 공항 밖으로 빠져나온다.

14. 공항 앞 도로. D

공항을 빠져나와 도로에 정차된 택시를 발견하는 프로스트.

재빨리 캐리어를 싣고 택시에 올라탄다.
 이내, 프로스트가 탄 택시가 출발하려는데,
 순간, 콰카광!!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폭발하고 마는 택시.
 아연실색이 돼 거리를 뛰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전 켄에서 프로스트와 부딪혔던 금발의 남성이,
 공항을 걸어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다 핸드폰을 든다.

금발 남 타겟 제거 완료.

금발 남성의 다른 한 손엔 바꿔치기한 프로스트의 캐리어가 들려있다.

15. 국제 항공우주국 국장실. D

벽면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는 시엘 국장.

뉴스 앵커 오늘 오후, 워싱턴 공항 근처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 주디트의 집. D

뉴스 앵커 이 사고로 자동차에 타고 있던 미국의 저명한 우주과학자 프로스트 박사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는 주디트.
 뉴스 화면엔 프로스트에 대한 자료 화면이 나오고,
 주디트의 얼굴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다.
 FADE OUT.

17. 우주 공간

광활한 우주 속, 자전축이 40도 이상 뒤틀린 채 기울어진 지구의 모습.
 푸른빛을 발하던 행성은 검푸른 해수면으로 뒤덮여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육지는 자욱한 열대 밀림과 얼어붙은 빙하로 변해있다.

자막 '2050년'

18. UN 지구연방 로비. D

INSERT

'UN' 마크가 새겨진 건물 전경.

건물 로비 안 대형 스크린 위로,
'에우로파 프로젝트 제3차 특별 회의' 문구가 송출되고 있고,
로비 안은 전 세계 언론과 UN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기자1 (생방송) 이곳은 UN 지구연방 본부입니다. 조금 전, 지구의 새로운 달을 찾기 위한 '에우로파 프로젝트'의 3차 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정상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9. UN 지구연방 대회의실. D

회의실 안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둘러앉아 있다.
무대 단상에 서서 브리핑 중인 시엘 국장.
대형 모니터 화면엔, '에우로파 프로젝트' 개요가 정리되어 있다.

시엘 저희 WSA는 지난 20년간, 프로스트 박사가 제안한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토대로 목성의 제2 위성, 에우로파를 지구의 새로운 달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형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는 새하얀 빙하로 뒤덮인 에우로파의 전경.
이어, 에우로파 궤도에 진입한 WSA 탐사선과
현지에 도착한 WSA 대원들의 기록 사진이 차례로 나타난다.

시엘 에우로파에 탐사선을 보내 행성과 동일한 환경으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에우로파 생명체의 샘플을 확보함으로써 행성의 특성과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나노 블랙홀을 이용해 목성의 중력권에서 에우로파를 분리하는 시뮬레이션 그래픽이 재현된다.

시엘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듭했고, 그 결과 ‘에우로파’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80%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력에너지의 미세한 제어까지 가능한 나노 블랙홀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며 목성에서 에우로파를 떼어내 지구의 새로운 달로 만드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엘 국장의 연설을 경청 중인데,
그때, 금발의 한 남성이 미국 대통령에게 다가온다.
그는 14천에서 프로스트를 죽였던 CIA 부국장 데이비드(남 / 50대)다.

데이비드 이슬람 쪽 컨택 완료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는 조건으로, 이란과 동맹국들 표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정상들은 본회의 끝나는 대로 다시 접촉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미국 대통령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시엘 국장의 연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시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대로 가다간 남은 육지마저 바다로 변하고, 기후 환경은 더욱 악화돼 인류의 문명도, 생명의 진화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둘러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WSA는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전 세계의 동의와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엘 국장의 브리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유럽과 중동 이슬람 국가 정상들.
반면, 미국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한, 중, 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상들은 눈치를 보기 바쁘는데,

20. UN 지구연방 로비. D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각국 정상들이 로비로 걸어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며 질문 세례를 퍼붓는다.

기자2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지지하십니까?

기자3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여전히 에우로파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강행할 입장입니까?

로비 곳곳에서 인터뷰하는 각국 정상들.

프랑스 대통령 에우로파 프로젝트는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CUT TO

이슬람 대표 저희 이슬람 국가들은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적극 찬성합니다.
 달은 알라의 신성한 형체입니다. 암흑의 밤하늘에 하루빨리 달을 찾을 수 있다면 자금은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CUT TO

중국 주석 찬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필요성
 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안정성과 다자간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사
 안을 보다 신중히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엘 국장과 WSA 관계자들이 로비로 나오고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미국 대통령과 마주친다.
 냉랭한 표정으로 악수를 주고받는 시엘 국장과 미국 대통령.

시엘 미국은 끝까지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 (잠시 침묵하다가) 에우로파. 라틴어식 명칭이지만 영어식
 철자로 읽으면 유로파조. 그리스 신화에서 유럽 지명의 명
 칭이 이 행성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더군요.

시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미국 대통령 에우로파 프로젝트는 이름부터가 유럽을 위한 프로젝트라

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시엘 (굳어지는)

미국 대통령 저희는 묵묵히 때를 기다릴 겁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계속 해서 움직인다면, 언젠간 저희에게 유리한 기후 환경이 찾아오겠죠.

시엘 국장을 땀히 보더니 차갑게 지나쳐가는 미국 대통령.
잠시 멈춰 서있던 시엘 국장 역시 굳은 얼굴로 자리를 뜨는데,
로비를 빠져나가는 시엘 국장 앞으로 생중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자1의 모습이 보이고,

기자1 잠시 휴회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에우로파 프로젝트의 명운이 달린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지구의 운명이 달린 이번 표결에서 인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21. 호텔 비즈니스 룸. D

룸 안으로 한, 중, 일 정상과 CIA 부국장 데이비드가 앉아 있다.

데이비드 아시다시피 에우로파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새로운 달이 생기면 자전축이 지금 상태로 고정 될 거고, 결국 유럽에 만 유리한 기후조건이 계속되는 겁니다.

중국 주식 데이비드 (심각해지며) 그럼 미국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NASA에서는 자기장과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자전축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 기술만 개발되면 미국과 동아시아에 가장 유리한 기후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실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국 주석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데이비드 저희에게 협조하신다면, 미국이 축적해 놓은 셰일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제안에 고민에 빠지는 한, 중, 일 정상.
데이비드는 차분한 얼굴로,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유심히 살핀다.

22. UN 소회의실. D

테이블에 모여 회의 중인 시엘 국장과 WSA 참모들.
다들 신중하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참모1 현재 저희가 확보한 표는 62표이고, 과반수를 넘으려면
34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아
프리카 표가 30표가 넘는 상태라 결국 캐스팅보드는 한,
중, 일 동아시아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엘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
는 상황입니까?

참모1 그렇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시종일관 동아시아
표를 겨냥한 집중적인 로비와 비공식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23. HEAVEN 안전 빌리지. D

INSERT

폐허가 된 도심 속에 유일하게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 돔.
그 안으로 웅장한 건물들과 푸른 숲이 생기롭게 자리 잡고 있다.

자막 ‘HEAVEN 안전 빌리지. 영국 런던 지부.’

본사 건물 대형 광고판에서 안전 빌리지 광고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영상 속, 평온하고 행복하게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광고 나레이션 지구의 변화는 우리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해븐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평
화로운 일상. 모두를 위한 안식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
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꿈의 도시 해븐 안전 빌리
지. 당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24. HEAVEN 안전 빌리지 본사 회장실. D

식물원처럼 꾸며진 인공 정원이 있는 회장실 안.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채 톱으로 나무의 가지를 치고 있는 한 여성.
 다국적 기업 HEAVEN의 CEO인 소피아(여/ 40대)이다.
 가녀린 팔뚝이 무색하게 힘찬 손길로 가감 없이 가지를 치는 소피아.
 소피아 뒤로 임원진들이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소피아 이게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를 잘라내는 거랑 다름없어요.
 (뒤돌아 임원진들을 보며) 그런데도 왜 가지치기를 하
 는지 아세요?

임원진들 (말없이 보면)

소피아 그래야 몸통이 살거든요. 가지를 잘라내야 햇볕을 충분
 히 받고 바람도 잘 통해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미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 팔다리를 잘라낸다는 게.

소피아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소피아 우리 HEAVEN도 앞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선 올해 안에 안전 빌리지 내 난민 구역을 증축하고,
 매년 도심 거주지의 지하 병커도 무상으로 제공할 겁니
 다. (임원진들을 둘러보며) 모두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공존 없는 생존은 명분 없는 혁신에 불과하다는 걸.

소피아의 말에 임원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때, 푹푹-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소피아에게 다가오는 비서.
 비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건네며,

비서 WSA 시엘 국장님이십니다.

소피아 (한 템포 생각을 정리하고 전화를 받으며) 네. 국장님.
 (사이) ... 안 그래도 잠시 후에 중국 정부와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소피아가 인공 정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소피아 에우로파 프로젝트 찬성을 전제로, 중국 측이 제안한 안

전 가옥 관련 조건을 모두 수용할 생각입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반의 표까지 확보 할 수 있을 거고요.

INSERT

UN본부 소회의실에서 소피아와 통화중인 시엘 국장.
그의 얼굴엔 흥분과 안도가 뒤섞여 있다.

시엘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소피아)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선의가 아닌 생존의 문제니까요.

CUT TO

다시 HEAVEN 회장실 안.

소피아 (계속 통화를 이어가며) 다만... 조건이 하나있습니다.
(시엘) 조건이요? ... (짧은 침묵) ... 무슨 조건입니까?
소피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25. UN 지구연방 대회의실. D

로비 한가운데 걸린 대형 시계가 오후 2시 정각을 가리키고,
각국 정상들이 로비로 모습을 드러낸다.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 정상들이 대회의실로 하나둘씩 입장하자,
여기저기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CUT TO

대회의실 안. 정상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착석하자,
대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고, UN 사회자가 무대 단상으로 올라온다.

UN 사회자 그럼, 결의안 번호 2050-03,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관한 표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연설의 연설자는...

그때,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단상 쪽으로 걸어 나오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인다.
 대회의실 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하는데,

INSERT

24썸 HEAVEN 회장실 안에서 시엘 국장과 통화하던 소피아.

(시엘) 조건이요? ... (짧은 침묵) ... 무슨 조건입니까?
 소피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중국을
 설득하는 조건으로 ‘에우로파 프로젝트’의 실무 총책임자
 를 주디트 선장이 맡았으면 합니다.
 (시엘) ... 주디트를 말입니까?
 소피아 네.
 (시엘) (고민하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능력이나 경험만 보면, 자
 격은 충분합니다. 다만, 주디트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있
 다 보니...
 소피아 (입가에 열은 미소가 스치며) 저는 오히려 그 리스크가
 이 프로젝트에 명분과 설득력을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이
 보다 강력한 서사는 없을 테니까요.

CUT TO

다시 UN 본부 대회의실.
 단상 쪽으로 걸어 나오던 여성이 천천히 단상위로 올라 마이크 앞에 서는데,
 어느 덧 30대 중반 성인이 된 주디트이다.

UN 사회자 에우로파 프로젝트 실무 총 책임자로 선정된 주디트 클로
 텔 선장입니다.

대회의실 모두의 시선이 주디트에게 집중되고,
 주디트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 후, 마이크 앞에 더 다가간다.

주디트 안녕하세요. 에우로파 프로젝트 카드모스 크루의 선장
 주디트 입니다. (잠시 땀을 들이다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
 겠지만... 제 어머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주범이
 자 달 소멸의 책임자로 기록된, 안젤라 클로텔 선장입니다.

주디트의 말에 웅성거리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

주디트 저는 그녀의 딸로 살아오며 비난과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주디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주디트 그래서 숨지 않고 WSA에 입사해서 실력으로 당당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에 새로운 달을 찾아주는 것만이 저희 어머니의 과오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주디트의 눈동자가 뜨거워지고,

주디트 에우로파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존 앞에서는 국경도, 이념도, 자본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힘주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소명으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이 지구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주디트의 최종 연설이 끝나자, 묵직한 정적에 잠기는 대회실 안.
각국의 정상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

26. 투표 몽타주. D

— UN 대회의실 투표 부스.

각국 정상들이 차례로 일어나 투표 부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찬성, 반대 양쪽으로 찍히는 투표용지들이 INSERT로 보여진다.
화면 자막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찬반 투표 현황.

‘찬성 57... 58... 59...’ ‘반대 45... 46... 47...’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 부스로 들어가는 한, 중 일 정상들.
중국 주석이 알 수 없는 얼굴로 미국과 WSA 쪽을 번갈아 바라보는데,

- UN 대회의실.

UN 사무총장이 투표 결과지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간다.
긴장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엘 국장과 주디트.
미국 대통령도 노심초사한 모습인데, 유독 데이비드만 자신만만한 얼굴이다.

UN 사무총장 2050 - 03. UN 정기 총회에 안건 된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인원 192명. 찬성 117, 반대 51, 무효 24표로, 에우로파 프로젝트 허가를 공표합니다.

딱! 딱! 딱! 의결 봉을 내리치는 UN 사무총장.
UN 사무총장의 말에 환호하며 와락- 끌어안는 시엘 국장과 주디트.
찬성표를 던진 각국의 정상들도 서로 악수하며 기쁨을 나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더니,
서둘러 대회의실을 빠져나간다.

27.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집. D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집 안,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뉴스 앵커 오늘 열린 UN 총회에서 에우로파 프로젝트가 허가됨에 따라, WSA 소속 대원들은 새로운 달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엘 국장은 인터뷰에서...

이때, 건장한 체구에 근육질 몸, 얼굴이 수염으로 뒤덮인 한 남성이,
TV를 지나쳐 어디론가 걸어가면,
TV 옆 선반으로, 한 소녀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보인다.
이내, 상의를 탈의한 채 욕실로 들어서는 남자.
비장한 얼굴로 세면대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각오를 다지듯 얼굴을 뒤덮은 수염을 면도하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오른쪽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새겨진 아라비아 숫자 문신이 눈에 띈다.

28. WAS 국제 항공우주국 활주로. N

비행기에서 내리는 주디트, 시엘 국장, WAS 관계자들.
기다리고 있던 WAS 임직원들과 소피아가 이들을 반긴다.

소피아 (악수하며)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시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소피아 (미소 지으며) 별말씀을요.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피아가 시엘 국장 옆에 서 있는 주디트를 보더니,

소피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장님.
주디트 (정중히 인사하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WAS 부국장이 시엘 국장에게 다가가고,

WAS 부국장 곧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참여할 크루원들이 도착할 예정이니 서둘러서 일정 준비하시죠.

부국장의 말에 일행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와중, 주디트가 소피아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주디트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저를 프로젝트 실무 총책임자로 추천한 것도 대표님이시라고...
소피아 HEAVEN은 기업입니다. 절대 이득이 없는 선택을 하진 않죠. 단지 전,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소피아가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이고,
주디트의 얼굴엔 각오와 책임이 겹쳐진다.

29. 국제 항공우주국 연회장. N

시엘 국장과 소피아를 포함한 WAS 관계자들과,

카드모스 크루, 포이닉스 크루, 킬릭스 크루의 대원들이
연회장 응접실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엘 드디어 이렇게 다들 모이게 됐네요. WSA 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통은 편의상 영어로 하는 걸로 하죠.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는 크루원들.

시엘 우선 크루원들 소개부터 하죠. 먼저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주디트 선장이 이끄는 유럽 우주인 연합 카드
모스 크루입니다.

시엘 국장의 말에 주디트와 카드모스 크루 소속인
가브리엘 (남 / 30대 / 이탈리아), 키라 (여 / 30대 / 독일),
타랍 (남 / 20대 / 이슬람계 프랑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시엘 그리고 고도프 선장을 필두로 한 러시아 우주인 연합인
포이닉스 크루입니다.

포이닉스 크루 소속인 선장 고도프 (남 / 40대 / 러시아),
페트로 (남 / 30대 / 체코) 마이카 (여 / 30대 / 러시아),
소냐 (여 / 30대 / 러시아), 얀 (남 / 20대 폴란드)이 인사를 한다.

시엘 마지막으로 박창훈 선장과 동아시아 우주인 연합인 킬릭
스 크루입니다.

킬릭스 크루 소속인 선장 박창훈 (남 / 40대 / 한국),
장린평 (남 / 40대 / 중국), 이수정 (여 / 20대 / 한국),
마츠다 (남 / 30대 / 일본), 웨이준 (남 / 20대 / 중국)이 인사를 한다.
연회장에 모인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시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위해 선발된 정
예 요원들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지구에 새
로운 달을 찾아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같았을 겁니다. 그리
고 우리에게 드디어! 그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
아왔습니다!

긴장감과 비장함이 뒤섞인 표정의 주디트와 크루원들.

시엘 모두 각 나라와 대륙을 대표하는 분들인 만큼, 힘을 합쳐서 이번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피아를 가리키며)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HEAVEN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가족 분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안전 빌리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엘 국장의 말에 표정이 밝아지며 박수를 치는 크루원들.
이에 화답하듯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소피아.

시엘 자 그럼 간단한 환영 행사와 저녁 만찬이 마련돼 있으니 자리를 옮기시죠. (하는데)
(누군가) 제 소개가 생략됐네요.

그때,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한 남자가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데, 손가락 마디에 새겨진 아라비아 숫자 문신.
27썸에서 등장했던 근육질의 수염 남, 스탈리온(남 / 30대)이다.
수염의 사라져 매끈한 얼굴을 드러내는 스탈리온.

시엘 (그제야) 아, 제가 이런 실수를. 이분은...
스탈리온 제가 직접 소개하죠. 전 카드모스 크루에 합류하게 된 스탈리온 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카드모스 크루란 말에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주디트.

스탈리온 그리고, 어차피 곧 아시게 될 테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미국 NASA에서 우주비행 훈련을 시작했고, 태생 또한 미국입니다.

스탈리온의 말에 순간 멈칫하며 웅성거리는 크루원들.

스탈리온 하지만 전 영국으로 귀화했고, 지금은 WSA 소속 우주비행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행보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으며, 에우로파 프로젝트

의 성공을 제 사명이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시엘 스탈리온은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정예 대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분명 큰 힘이 되어줄 존재이니,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 이제 그럼 저녁 만찬 자리를 시작할까요?

시엘 국장의 말에 만찬 자리로 이동하는 크루원들과 관계자들.
하지만 주디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스탈리온을 바라본다.

30. 저녁 만찬 자리. N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엘 국장에게 다가오는 주디트.

주디트 저희 크루원인데,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시엘 상황이 워낙 급박했잖아.

주디트 아무리 그래도 미국 국적인데,

시엘 (말 자르며) 지난 몇 년간 NASA에 소속돼 있다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의 독자적인 노선에 실망한 대원들이 대거 이탈했어. 스탈리온도 그중에 한 명이고. 오랜 기간 동안 사상 검증 과정을 거쳤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시엘 국장의 단호한 어조에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주디트.

CUT TO

식당 안에서 자유롭게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는 크루원들.
한쪽에선 음식을 담으며 조용히 대화를 주고받는
킬릭스 크루의 박창훈 선장과 장린평 부선장의 모습이 보인다.

박창훈 중국이 갑자기 노선을 바꾼 이유가 뭘니까?

장린평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희 그냥 명령에 따를 뿐이죠.

박창훈 아직 노선이 100프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장린평 에우로파로 출발하기 전 까진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창훈 (생각이 많은 듯, 미간을 찌푸리고)

박창훈과 장린평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뒤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유럽 카드모스 크루의 가브리엘, 키라, 타랍과,
러시아 포이닉스 크루의 페트로, 마이카, 얀의 모습이 보인다.

페트로 (도발하듯) 카드모스 크루는 궤도진입 시뮬레이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가브리엘 최근 일주일 기록은 85프로 정도 됩니다.
페트로 (피식) 조금 의외네요.
키라 뭐가 의외라는 거죠?
페트로 생각보다 기록이 좋아서요. 우주 항공 기술력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니, 저희와 상당한 격차가 날 줄 알았거든요.
가브리엘 궤도진입 시뮬레이션은 팀원들의 단합이 중요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포이닉스 크루가 저희와 기록이 비슷하다는 건, 팀워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페트로 그건 카드모스 크루가 할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
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페트로 카드모스 크루에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스타리온 보며) 미국인도 있고 (바로 앞 이슬람계 프랑스인 타랍을 보며) 무슬림도 있는 것 같은데.
가브리엘 (굳어지며) 뭐요?!!

순간, 화가 난 가브리엘이 페트로의 멍살을 확- 움켜잡는데,
이때, 포이닉스 선장 고도프와 주디트가 다가와 두 사람을 떼어놓는다.

주디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경쟁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현 시간부로 팀워크를 해치는 대원들은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디트의 냉정한 일갈에 숙연해지는 크루원들.

고도프 저희 크루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고도프 선장의 사과로 상황이 정리되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크루원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스탈리온이 주디트를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

CUT TO

창가 앞에 서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주디트.
잠시 후, 스탈리온이 주디트 옆으로 다가오며,

스탈리온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디트 선장님. 스탈리온이라고 합니다.
주디트	(말없이 인사만)
스탈리온	오래 전부터 크루원으로 합류하길 희망했는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네요.
주디트	(차가운 말투로) 미국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크루원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스탈리온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더 노력할 거고요.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장님 어머니가 아르테미스 월면 기지 안젤라 선장님이죠?
주디트	(안젤라 얘기가 나오자 흠칫 놀라고)
스탈리온	안젤라 선장님은 제가 가장 동경하던 분이셨어요. 그분 때문에 저도 우주인의 삶을 택했고요.
주디트	...
스탈리온	선장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바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달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스탈리온이 창밖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스탈리온 안젤라 선장님은 우주 어딘가의 별이 되셨을 겁니다. 선장님을 꼭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스탈리온의 말에 진심이 느껴진 듯 생각이 많아지는 주디트.
자신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짓는 스탈리온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는데,

31. 미국 CIA 국장실. D

CIA 국장이 책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 화면 속. 미국인들 사이에서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나뉘어져 열띤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 앵커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며칠째 지속
되는 가운데, 백악관 앞에서는 두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
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UN 법안이 통과된 이상 범지구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강
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와 NASA의 대응에 귀
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때. 노크 소리와 함께 데이비드가 국장실 안으로 들어선다.
뉴스를 끄고 심란한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는 CIA 국장.

데이비드 에우로파 프로젝트가 곧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면 프로젝트 대원들이 우주 전함 유피트론으로 출항
할 예정이고요.

CIA 국장 플랜 B는?

데이비드가 CIA 국장에게 ‘시크릿’이 적힌 기밀문서를 건네며,

데이비드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크루원으로 잠입한 저희 요원들입
니다.

CIA 국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더니,

CIA 국장 국내에서도 에우로파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자네 생각은 어때?

데이비드 (확신에 찬 얼굴로) 미국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켜 내
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절대 얼어붙은
땅을 물려줄 순 없습니다.

CIA 국장 (만족스러운 듯)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좌초시켜야 돼.

데이비드 (결연한 눈빛) 네.

32. WSA 체력훈련실. D

웅장하고 진취적인 느낌의 음악이 흘러나오며,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크루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크로스핏 형태의 인터벌훈련을 받는 각 크루의 크루원들.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모두 탄탄한 근육을 자랑한다.
여러 크루원들을 모습이 빠른 호흡의 INSERT CUT으로 보여지다가,

33. WSA 모의 비행 훈련실. D

우주복을 입고 비행 훈련을 하고 있는 주디트와 카드모스 팀원들.
3D 가상현실 고글을 쓴 채, 대형 모니터 화면의 행성 화면을 주시한다.
조종실 시선으로 목성의 위성인 '에우로파' 궤도로 진입하자,

AI 음성 에우로파 궤도 진입 시뮬레이션. 자기장 폭풍 강도 역대
최고 수치 10.0. 조종 반응 지연 및 센서 오류 35% 가중.

훈련실 기체는 격하게 요동치고, 모니터엔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인다.

주디트 추력 75! 리프트 최대 출력 90!!
가브리엘 8G. 10G... 이대로 가다간 우주선 선체가 못 버팁니다!

순간, 자기장 폭풍의 영향으로 마구 흔들리는 훈련실 안.

타랍 선체 가장자리 파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디트 (아랑곳하지 않고) 선수 업! 추력 120!!

그때, 스탈리온이 빠르게 콘솔 데이터를 분석하며
정확하게 문제 지점을 짚어낸다.

스탈리온 자기장 분산 포인트가 비틀렸어요! 코스 3도 우회하고,
출력 70으로 재분배! 자동 보정 끄고 수동 전환하면 가
능성 있습니다!

주디트 (의외라는 듯 스탈리온을 보다 이내 결심한 듯) 출력
70 재분배. 자동 보정 끄고 수동 전환한다!

잠시 후, 스탈리온의 말에 따라 조종을 수정하자 흔들리던 기체가
안정을 되찾고 경고음이 멈추며 훈련실 안이 고요해진다.

AI 음성 에우로파 궤도 무사 진입. 소요 시간, 12분 48초.
가브리엘 12분 48초!!역대 최단 시간이에요!!

주디트와 카드모스 팀원들이 하이 파이프를 나누며 훈련 성공을 자축한다.
잠시 후, 스탈리온이 3D 고글을 벗는데,
이마에 땀이 맺히고, 얼굴은 훈련의 긴장감으로 젖어 있다.
스탈리온을 바라보던 주디트의 표정에 예상치 못한 흥미가 스치는데,
그때, 훈련실 문이 열리며 시엘 국장이 안으로 들어온다.

시엘 (주디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주디트. 잠깐 내 방
에서 얘기 좀 나누지.
주디트 ...?

34. WSA 국장실. D

국장실 문이 열리며 안으로 들어서면 시엘 국장과 주디트.
소피아엔 소피아가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CUT TO

심각한 표정으로 소파에 마주 앉아 있는 주디트, 시엘 국장, 소피아.

소피아 저희 HEAVEN의 자체 정보망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결
과,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미국 스파이가 크루원으로 잠
입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소피아의 말에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는 주디트.

주디트 믿을만한 정보입니까?
소피아 HEAVEN의 정보망은 그동안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기

- 시엘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예요. 웬만한 국가 기관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 시엘 하지만 아직 100%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라 에우로파 프로젝트의 출항을 지연시키긴 힘든 상황이야.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 소피아 그래서 이 사실을 주디트 선장님께만 공유해드리는데 겁니다.
- 시엘 크루원들 외에 우주선 대원으로 WSA 요원을 잠입시킬 거니까, 임무 도중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해.

예상치 못한 사실에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는 주디트.

35. 우주 출항 몽타주

- 뉴스 화면.

에우로파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앵커의 모습.

뉴스 앵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에우로파 프로젝트에 참여한 크루의 대원들이 일주일간의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오늘 오후 우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 WSA 발사대.

대형기지 안으로 거대한 우주선과 현장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우주복을 입은 주디트와 크루원들이 비장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다. 기지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시엘 국장, WSA 관계자들이 대원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격려한다.

시엘 (안아주며) 주디트. 안젤라도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시엘 국장의 말에 엄마를 떠올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주디트.

- 카드로스 우주선 안.

주디트, 스탈리온, 카드모스 크루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우주선 좌석에 앉아 있다.
주머니에서 안젤라의 유품인 아르테미스 목걸이를 꺼내는 주디트.

주디트 (목걸이를 목에 걸며) 지켜봐 줘. 엄마...

그런 주디트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스탈리온.

- 안전 빌리지 HEAVEN 본사 건물 로비.

주디트의 동생 레오를 비롯한 크루원들의 가족들이,
로비에 모여 긴장한 얼굴로 TV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 앵커) 에우로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주디트 선장이 탑승한
카드모스 우주선을 비롯해 포이닉스와 킬릭스 우주선은
출항 12시간 후, 지구 궤도에 위치한 우주 전함 유피트
론에 도킹할 예정이며,

- CIA 작전실.

작전실에 모여 TV 뉴스를 보고 있는 데이비드와 CIA 요원들.

(뉴스 앵커) 에우로파 프로젝트 크루원들을 태운 유피트론은, 목성
궤도에 진입해 나노 블랙홀 기술을 이용한 본격적인 작
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WSA 상황통제실.

발사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WSA 대원들.

대원1 엔진 출력 이상 무! 발사체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들
어갑니다. 10! 9!

- 카드모스, 포이닉스, 킬릭스 우주선 안.

긴장한 표정의 크루원들 얼굴이 하나둘씩 보이고,

(카운트다운) 8! 7! 6! 5! 4!

- 전 세계 곳곳.

전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우주선이 중계되는 발사 화면을 TV로 지켜보며 기도한다.

(카운트다운) 3! 2! 1!

- WSA 발사대.

(카운트다운) 발사!!

이윽고, 쿠궁- 육중한 발사 소리와 동시에,
우주로 발사되는 카드모스 우주선.
곧이어, 포이닉스, 킬리스 우주선도 우주로 날아오른다.

36. 우주 전함 유피트론. D

INSERT

고요한 우주. 지구 궤도에 떠 있는 거대한 크기의 우주 전함 유피트론.

자막 '우주 전함 유피트론'

유피트론 안 메인 조종실에 대원 10여 명이 모여 있고,
우주선이 발사되는 생중계 영상을 대형 모니터로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흰머리가 헐끗한 한 남자가 모니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온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따라가던 카메라가, 서서히 남자의 얼굴을 비추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25년 전 사망했던 프로스트(남 / 60대) 박사이다!

1부 끝.